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재정착 사례

발표자 : 우즈벡 상담원

근로자	성명	SABIROV KAHRAMON		
	국적	우즈벡	연락처	99890-247-1945
	회사명	자동차 부품		
	업종	서비스	직원수	4명
	소재지	UZBEKISTAN ANDIJAN		

저는 우즈벡 근로자 카흐라 모느입니다.

저는 2010년 3월 24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진해에 있는 STX 내 협력업체 지성산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출국하여 2015년 5월 1일 한국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국의 조선업 일이 많지 않아서 그때부터 본국에 가서 할 자동차 부품 가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용 연장을 하지 않고 2018년 4월 25일에 완전 출국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폐차장에서 중고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여 본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냈고, 친척이 시장에서 부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벡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장소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ANDIJAN)에서 매월 400\$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2018년 5월 30일에 자동차 부품 가게를 오픈했는데 한 달에 250~350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 6개월 후에는 문구점도 오픈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서류가 필요했는데 마침 E-9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중고 자동차부품을 본국으로 컨테이너 1대를 보낸 서류가 있어서 우즈벡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1주일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1주일에 한국과 우즈벡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1주일짜리 비자를 몇 번 받고 부터는 1개월 비자를 받았고, 2018년 7월부터는 3개월 비자를 받고 3개월 마다 한국에 입국하여 폐차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여 본국에 컨테이너를 보냅니다. 지금은 직원 4명과 함께 자동차 부품 가게와 문구점 등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자동차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바로 우즈벡에 보냈으면 좋다고 함 .그런 사업을 하고싶다 함)다른 근로자들도 저처럼 본국에 돌아간 후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사례가 한국에서 일하는 다

른 E-9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사진첨부



자동차 부품가게



자동차 부품 가게 내부



자동차 부품 가게 내부



문구점